

한 달 남았는데... 시·군 재정 5조원 집행 안돼

전남 집행률 63.8% 전국 꼴찌
경제활성화 조기집행 취지 무색
예산 이월·불용 우려까지

전남 일선 시·군의 하반기 재정집행 실적 부진하다. 집행 기간이 겨우 한달여 남았는데, 실적은 63.8%에 그치고 있다. 전국 꼴찌다.

건설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조기 집행 요구가 높지만 일선 시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재정 집행 목표에 미달해 예산 배정에서 패널티를 받은 지자체가 올해도 되풀이해 안이한 행정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다. 전남도는 재정집행 부진 시·군을 상대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채찍을 들어 독려하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으로 전남지역 22개 시·군 하반기 재정집행 실적은 전체 예산 15조2368억원 가운데 63.8%인 9조7165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직까지 5조5203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재정 집행률이 평균에 미치지 못한 지자체는 15곳이나 됐다. 꼴찌는 신안군으로 전체 예산 7071억원 중 4206억원만 집행해 59.5%에 그쳤다. 다음으로 곡성군이 4462억원 중 2660억원(59.6%), 보성군 6032억원 중 3650억원(60.5%), 담양군 5053억원 중 3059억원(60.5%), 화순군 7023억원 중 4286억원(61.0%)으로 하위 5위를 기록했다.

신안군은 성장추진지역 개발사업(187억원)이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31.8% 집행에 그쳤고, 곡성군은 도시계획 도로(113억원)와 등화나라 개발사업(103억원)이 보상 협의 및 용지 매입 지연 등으로 각각 34.6%, 15.4% 집행에 그치면서 재정집행률이 크게 떨어뜨렸다.

집행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목포시로, 8598억원 중 6197억원을 집행해 72.1%를 나타냈다. 본청은 시·군보다 집행률이 높은 81.8%로 집계됐다.

전국 시·도별 재정집행 실적(본청+시·군)은 전남이 꼴찌를 차지했다. 전남은 22조9395억원 중 16조136억원만 집행, 69.8%를 기록했다. 6조9259억원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1위인 부산의 집행률 78.8%와 비교하면 9%포인트 격차가 난다.

전남도는 시·군에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11월 말까지 집중 집행해 연말 예산 집행의 쏠림을 방지하고, 이월 또는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긴급입찰·예산 성립전 집행 등 각종 신속 집행 제도를 활용해 집행률을 높이라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특히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시·군에게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때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독려했다. 도가

제시한 목표는 본청 94.1%, 시·군은 84%다. 지난해 목표 달성에 미달한 하위 5개 시군은 패널티로 균형예산 편성 때 불이익을 줬다.

고광완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상반기에는 지방재정 신속 집행 목표를 넘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하반기는 다소 주춤하다"며 "실적 점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재정집행 속도를 높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월·불용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을 독려했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새난 대비 드론으로 구호품 전달 훈련 19일 오후 광주시 북구 마곡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운동장에서 겨울철 재난구호종합훈련이 열렸다. 한파와 폭설 등으로 인해 주택이 고립되고 이재민이 발생할 상황을 대비해 드론을 이용한 구호품 전달 훈련도 실시됐다.

/최해배 기자choi@kwangju.co.kr

■ 광주 주요대학 지원가능점수

(광주진학부장협의회·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대학	학과	점수
전남대	의예과	278
	치의학과	271
	영어교육과	257
	행정학과	254
조선대	의예과	273
	치의예과	269
	영어교육과	232
광주교대	경찰행정학과	226
	인문계열	260
광주과기원	자연계열	254
		266

전남대 의예과 278점·조선대 의예과 273점 이상

광주 고교진학부장협의회 분석

2019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서울대에 지원하려면 국·수·탐 300점(원점수) 기준으로 인문계열은 282점 이상, 자연계열은 268점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광주 고교진학부장들의 분석이 나왔다.

<관련기사 7면>

전남대·조선대 의예과 지원 가능 점수는 각각 278점과 273점으로 제시됐다. 이는 전년도(전남대 284점, 조선대 280점)보

다 6~7점 낮아진 것으로, 올 수능이 역대급 고난도여서 수험생 점수가 일제히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광주교육청 대입진학지원단과 광주진학부장협의회는 19일 광주 고교생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한 대학별 지원 가능 점수를 공개했다.

광주진학부장들은 연세대와 고려대 인문계열은 274점, 자연계열은 262점은 돼야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진학부장들은 이번 분석자료가 원점수를 바탕으

로 한 가채점 결과여서, 다음달 5일 수능성적이 발표되면 표준점수나 백분위 점수 등에 따라 대학별 반영점수를 파악한 다음 정확한 지원선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대를 예로 들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국어100/수학120/탐구80'이기 때문에 같은 총점이라면 수학 점수가 높은 학생이 더 유리하다는 내용을 숙지하고 지원 가능 대학과 학과를 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알립니다

한국 문단의 주인공 당신입니다

2019 광주일보 신춘문예
12월 17일(월)까지 접수

광주일보사가 한국 문단의 새 주역이 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광주일보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 시작된 이후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돼 왔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 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치열한 문학 정신이 살아 있는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부문 및 상금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300만 원)

-시 : 3-5편(당선작 1편, 상금 100만 원)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100만 원)

■ 접수 마감 : 2018년 12월 17일(17일 도착분까지 유효)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61482, 광주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편집국 문화부 (SC제일은행빌딩 9층) 문의 062-220-0624

■ 기타 유의 사항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원고 접수 시 맨 뒷장에 전화번호·주소·e메일주소를 첨부해 주십시오.

-응모 작품은 발표된 적이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기성 작가 표절일 경우 당선취소됩니다.

-결봉투에 공모 부문을 꼭 명기해 주십시오.

-당선작은 2019년 1월 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합니다.

광주일보

광주시·전남도,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입장차

공공기관장협의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광주시·전남도 등이 함께 사회 공헌 활동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발전기금 조성 등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관련기사 5면>

19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한전KDN 본사에서 열린 제7차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에는 공동의장을 맡은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16개 공공기관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혁신도시 현황보고와 올해 과제 추진상황 보고 등으로 이어졌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 시장은 '광주시와 전남도는 2006년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방세를 재원으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이 약속이 지켜져야 혁신도시가 더 큰 미래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발전기금 조성 등을 촉구했다. 빛가람혁신도시 조성에 따라 나주시와 전남도에 지방세가 늘고, 광주시와 전

남도·나주시는 이 지방세의 70%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하자고 협의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날 광주시는 지난 2006년 2월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가 합의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공유협약서' 이행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혁신도시는 광주와 전남이 하나라는 공동체 정신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참석 참석자들은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과 행정지원, 공동 과제 발굴 및 추진 등을 약속하는 사회공헌활동 협약을 체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은행 창립 50주년
KWANGJU BANK 50th Anniversary

www.kjbank.com

“함께 이룬 50년, 같이 나눌 100년”

광주·전남의 기업인들과 지역민 모두의 뜻을 모아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100년 은행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객과 늘 함께하는 광주·전남 대표은행이 되겠습니다.

광주은행